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등 전남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9일 도당 사무실에서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왼쪽) 비정규직 노동자 98명이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민노당에 입당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깨띠 두르고 거리유세 본격 표몰이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여야 필승대회

광주·전남 출마 1024명 '유권자 앞으로'

20일부터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여야 각 당들도 대대적인 출정식 또는 필승 결의대회를 하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1024명의 후보자도 거리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 광주 동구 충장로 무등빌딩 앞에서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와 각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하고 광주 서구 양동 선거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첫 유세도 가질 예정이다. 출정식에는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참석해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2시 광주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김동철·김영진·강기정·조영택·김재균·이용섭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최영관·박경린씨 등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민주당 압승을 위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9시30분 전남대 정문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등 28명 전체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자, 농민, 서민이 승리하는 유쾌한 선거혁명을 이뤄내자"고 필승을 다짐할 계획이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오전 7시30분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광산구 하남산업공단 입구 흑석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참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와 이병완 공동선대위원장 등 전체 후보자와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 빈소를 참배하고, 선대본부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무소속 후보들도 각 권역별로 연대를 모색하고 합동유세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 등 남구 무소속 연대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 광주공원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전주언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 등 서구지역 무소속 출마자들도 이날 오전 10시30분 5·18 기념공원에서 대규모 합동연설회를 갖고 필승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앞서 19일에는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등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도의원 후보도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해 2012년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며 필승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비정규직·중소사업장 노동자 98명에 대한 집단 입당식을 갖는 등 출전 채비를 갖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숫자로 본 지방선거

투표용지 3억장, 쌓으면 63빌딩 120배 높이

가정배달 공보물 26억장…투입 인력 38만명

6·2 지방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제로 치러진다.

유권자 한사람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에 동원되는 물량, 인력, 예산도 엄청나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모두 3천880만명으로 투표용지는 무려 3억여장에 이른다.

투표용지 100장을 쌓을 때 높이가 1㎝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3억여장을 쌓으면 그 높이가 30㎞나 된다.

이는 63빌딩(지상높이 249m)의 120배이며 백두산(고도 2744m)의 11배나 되는 높이다. 투표용지를 펼쳐 놓을 경우 면적은 축구장 684개에 해당하는 474만120㎡에 이르고 투표용지를 일렬로 연결하면 그 길이가 4만4550㎞에 달해 한강(481.7㎞)의 92배다.

또 3억여장의 투표용지 총무게는 403t에 달한다.

종이 1t을 만들려면 3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투표용지를 위해 나무 8060그루가 베어진 셈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의 양도 사상 최대다. 모두 3천469개 읍·면·동에 6만90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고 현수막의 크기를 가로 10m, 세로 1m로 잡을 때 전체 현수막 길이는 올림픽대교 392개의 길이에 해당하는 693.8㎞에 이른다.

또 94만6000여장의 선거벽보가 전국을 장식하고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은 모두 26억장에 이른다.

이번 선거에 동원되는 인력도 만만찮다.

선관위 직원 2600여명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감시 요원 7600여명, 투표관리 인력 2만2000여명, 개표관리 인력 9만여명 등 모두 38만여명이 선거 업무에 투입된다.

사상 최대의 물자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선거 비용 역시 83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액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100%라면 유권자당 2만1450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4회 지방선거와 같이 51.6%에 머무른다면 4만1662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규모를 감안할 때 개표를 완료하는 데 종전보다 1~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줌 업 북풍의 정치학

수도권서 불리한 민주당 광주·전남선 오히려 유리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北風)이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등 야권에 불리하게 나타날 경우 호남의 민주당 세력이 결집, 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무소속 후보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 광주·전남의 다른 당 후보들도 사태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호남에서 결집하면 당선 내지는 두자리 수 득표라는 기존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에 즈음해 정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발표할 것이 확실시되고, 한·미 정상이 지난 18일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을 지목, 공동대응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풍이 지방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

천안함 사태로 선거 최대이슈 떠올라

호남지역 무소속·한나라 후보들 긴장

특히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을 배후로 명시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하고 야권이 반발하는 등 이른바 '안보이슈'가 부상, 다른 쟁점들을 덮으면서 수도권 등의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20일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내주 이 대통령 담화, 25일께 정부의 합동 대북 대응조치 발표, 2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29~30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천안함 사태에 강력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선거캠프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지방선거전의 공식 선거전 기간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신(新) 안보정국과 북풍'의 선거환경을 조성,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폭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치평론가인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천안함 발표가 보수층을 결집하는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이 급속히 결집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야권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로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할 경우 반대로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무소속 후보에 뒤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는 희망적이지만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때문에 광주 남구·서구와 나주·화순·신안·광양·순천·구례 등 무소속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의 무소속 후보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남 중부권의 한 무소속 후보는 "반민주당 정서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북풍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며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 진정한 지역 일군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권의 한 무소속 후보도 "그동안 지역민들이 인물 위주의 선택을 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중앙에서 변수가 나타난 것만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국민의 정치에 대한 성숙도가 높은 만큼 '바람'에 휩쓸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검, 불법 선거운동 24시간 감시

검찰이 6·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19일 광주지검(지검장 길태기)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0일부터 불법 선거 단속 수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불법 선거사범 적발에 24시간 감시체제가 가동된다.

검찰은 단속반장인 김영규 공안부장을 비롯, 공안부 수사인력 16명(검사 4명)과 특수부, 강력부, 형사부 소속 직원 7명(검사 2명) 등을 투입해 3대 선거범죄 근절에 나선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사례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지검은 선거범죄 전용 신고전화(062-224-2045)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20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